

미술과 시간 보내기 5

페미니즘 예술 공감하기

2007년 미국 L.A에서 80년대 이후 나타난 페미니즘을 총망라하는 기념비적인 전시 'WACK! Art and the Feminist Revolution'이 LA 모던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 전시는 루이즈 부르주아, 주디 시카고, 린다 뱅글리스, 미리엄 사피로, 오노 요코 등 약 120 명의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페미니즘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그것을 뒤돌아보는 전시였다. 그 당시 전시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며 전위적인 것이었으며 어느 것 하나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저항적인 외침 그 자체로 다가왔었다.

페미니즘 미술이란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 예술가들이 종래의 예술을 남성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여성의 감성과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실천한 예술을 말한다." 페미니즘 미술이란 젠더(gender) <우리말로 '성'이라는 같은 말로 표기되지만, 영어로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생물학적 성차(性差)를 나타내는 섹스(sex)보다 젠더(gender)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남녀의 정체성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여된 성별임을 강조하는 사회학적인 의미의 성을 지칭한다.>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교육 기회, 제도적 모순을 고발하며 다른 언어나 표현 방식으로 역사와 현실 속에 처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미술을 말한다.



페미니즘 미술은 1960년대 초가 되면서 여성 미술가 단체들이 생겨나며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들은 그 당시 팝 아트, 미니멀리즘 등 남성중심의 모더니즘 예술에 반발하며 모더니스트들이 금기시하는 개인적인 표현의 강조, 새로운 재료와 공동의 작업 방식, 환경미술 등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갔다. 또한 린다 노클린이 아트 뉴스 지에 1971년에 발표한 논문 “왜 지금까지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는가”를 통해 예술적인 성공이 작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 문화적 상황 또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미술계 내부의 성차별적 모순을 밝혀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모더니즘에 반발하며 독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소수의 다른 역사와 문화도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맞물려 더욱 폭발하게 된다.

게릴라 걸즈(Guerrilla Girls)는 뉴욕을 무대로 시위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여성 행동주의 그룹으로 ‘배트맨’이나 ‘원더우먼’과 같은 ‘응징자’의 모습으로 고릴라 가면을 쓰고 창의적인 시위를 벌인다. ‘게릴라 걸즈’ 결성 초기에 한 회원이 게릴라(guerrilla)를 고릴라(Gorilla)로 잘못 표기한 것이 고릴라 가면의 시초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쓰고 곳곳을 누비며 미술계의 여성차별적 행태를 고발하는 선정적인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강연, 인터뷰, TV쇼에 출몰하는 등 센세이셔널한 방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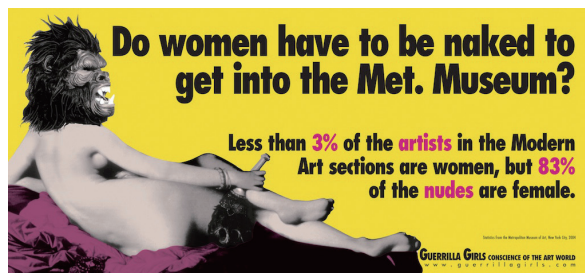
‘게릴라 걸즈’의 대표작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발가벗어야 하는가?>는 1989년 첫 번째 포스터 에디션 이후 2005년과 2012년 업데이트되었는데, 약 15년 간 여성 누드 작품은 고작 9%가량 감소했을 뿐이고 현대미술 섹션을 차지하는 여성 예술가의 비중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뉴욕시의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연 여성아티스트들의 수를 1985년과 2015년을 비교했는데 단 한 명만이 늘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포스터를 미술관 화장실 벽, 버스, 잡지, 옥외 광고에 붙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는데 얼마 전 ‘스티븐 콜베어의 더 레이트 나이트 쇼(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 마스크를 한 채 출연하여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술계의 남성중심적인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며 한탄했다.

1
“Abakan Red”
(1969), by
Magdalena
Abakanowicz,
WACK! Art and
the Feminist
Revolution MOCA,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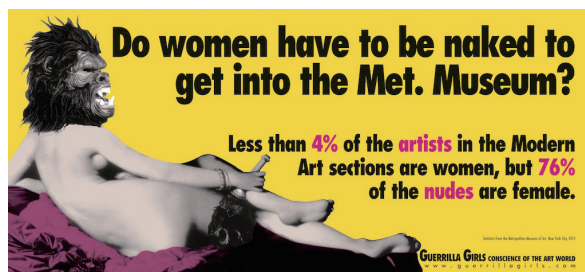
2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발가벗어야 하는가>
게릴라 걸즈(Guerrilla
Girls) /출처 : 게릴라
걸즈 공식 홈페이지



“모던 아트 섹션이 5% 이하의 여성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반면 누드화의 85%는 여성이다.” 1989년



“모던 아트 섹션이 3% 이하의 여성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반면 누드화의 83%는 여성이다.” 2005년



“모던 아트 섹션이 4% 이하의 여성 아티스트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반면 누드화의 76%는 여성이다.” 2012년



여성 미술가가 되는 일의 장점(The Advantages of Being A Woman Artist)

- 성공에 대한 압박 없이 일함(Working without the pressure of success)
- 남성과 함께 전시에 나갈 필요가 없음(Not having to be in shows with men)
- 4개의 프리랜스 잡을 통해 미술계에서 해방될 수 있음(Having an escape from the art world in your 4 free-lance jobs)
- 80세가 넘으면 주목받을 수도 있음(Knowing your career might pick up after you're eighty)
- 무슨 작업을 하든 여성적이라는 딱지를 보장 받음(Being reassured that whatever kind of are you make it will be will be labeled feminine)
- 종신 교수직에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됨(Not being stuck in a tenured teaching position)
-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 작업에서 발견함(Seeing your ideas live on in the work of others)
- 커리어와 모성 중의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짐(Having the opportunity to choose between career and motherhood)
- 파트너가 젊은 여자를 찾아 날 차면 일할 시간이 더 많아짐 (Having more time to work when your mate dumps you for someone younger)
- 미술사 개정판에 추가됨(Being included in revised versions of art history)
- 천재라는 호칭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 없음(Not having to undergo the embarrassment of being called a genius)

신디 셔먼은 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대중 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정되고 왜곡되었는지 사진이나 비디오, 퍼포먼스 등의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 그것을 드러낸다. 셔먼은 매스미디어나 할리우드 영화의 이미지에서 발췌한 여성의 역할로 변장하여 연기하고 패러디하며 15세기~19세기 후반의 유럽 귀족들의 초상화 속 여성의 모습들, 마녀나 광인, 포르노 배우, 마네킹 등으로 분장하여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찍는 셀프 포트레이트 (Self-Portrait)를 제작하였다. 셔먼은 자화상을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어있는 여성의 이미지

3
<지난해 얼마나 많은 여성 아티스트들이 뉴욕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열었나?>
1985년 VS 2015년
/ 출처 : 게릴라 걸즈 공식 홈페이지

4
여성 미술가가 되는 일의 장점(The Advantages of Being A Woman Artist) : 1988년, 게릴라 걸즈
/ 출처 : 게릴라 걸즈 공식 홈페이지



5
<Untitled Film Still #21> 신디셔먼, 1978
/ 출처 : MOMA

6
<Untitled Film Still #35> 신디셔먼, 1978
/ 출처 : MOMA

7
<Untitled #205> 신디 셔먼, 1989
/ 출처 : MOMA

를 복제함으로 이러한 재구성된 모습들이 창조해낸 허구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그 외에 광고 디자인의 언어 방식을 사용해 개념을 환기하는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공공 건물이나 장소에 전광판을 사용하여 시대의 통념화된 진리, 상식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제니홀저(Jenny Holzer) 등 페미니즘 예술가들은 다양한 형식과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2016.05.28 ~ 2016.08.28



멕시코 출신 화가로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우상적인 존재인 프리다 칼로와 멕시코 벽화운동의 주역인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2016년 5월 28일부터 열린다.

이 전시는 전 세계 단일미술관으로서 유일하게 프리다와 디에고의 그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멕시코 올메도 미술관>의 국보급 대표 소장품들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는 18세에 당한 비극적 사고 이후 47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받은 32번의 외과 수술로 인한 상처, 고통, 수차례 거듭되는 유산과 이혼의 고통 등 각각의 사건을 나열하며 프리다 칼로의 총체적인 삶과 예술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과 함께 그들의 완벽한 만남에서부터 기묘하고 고통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서로의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예술작품을 동시에 접할 수 있으며 더불어 멕시코를 사랑한 열정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http://www.sac.or.kr/program/schedule/view.jsp?seq=26243&s_date=20160528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1907~1954)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멕시코 민중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으로 유명해졌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디에고 리베라 (Diego Rivera, 1886~1957)

멕시코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멕시코의 신화와 역사, 민중의 생활을 그려 많은 벽화들을 남긴 화가로 기억된다. 혁명을 신봉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공산주의자의 이상을 간직했던 화가이다. 멕시코 민중에 대한 애정과 멕시코 인디오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희망, 두려움, 미신, 기쁨 등 그의 작품에서 조화를 이루며 다채롭게 표현되고 있다.